“아직도 기타를 칠때가 가장 행복해요”

목원대 대학원 클래식기타 석사과정 재학 중
러시아 콩쿠르 입상 · 프랑스 페스티벌 등 실력 쌓아
전주시 효자동 ‘앙헬기타음악원’ 어머니와 함께 운영

별이 가득한 한여름 밤. 클래식기타의 향연이 전주에서 펼쳐진다.

한국기타연주가협회가 주관하는 ‘제1회 전주기타페스티벌’이 오는 5~6일 전주신일교회 ECM센터에서 열린다.

특히 전주에서 최초로 열리는 기타페스티벌에는 전주의 어린 청소년들이 하모니를 이룬 ‘앙헬기타합주단’이 무대에 올라 작고 여린 손으로 클래식기타의 아름다운 선율을 풀어낼 예정이다.

이들의 기타를 지도한 젊은 선생님은 해외에서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박이랑(28) 클래식기타리스트.

전주 출신의 박이랑 기타리스트는 목원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부에 클래식기타를 전공, 클래식기타의 본고장 스페인은 물론 프랑스, 러시아, 브라질 등에서 연주회를 가지며 깊은 내공을 쌓았다.

20대 젊은 청년이 배낭을 둘러메고 스페인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을 떠돌며 클래식기타 마에스트로들과 함께 기타를 연주하며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매니저를 자처한 어머니의 헌신적 교육이 가장 큰 힘이 됐다.

어머니는 딸의 꿈을 담은 기타 연주 여행을 마치고 전주로 돌아온 2012년 전주시 효자동에 ‘앙헬기타음악원’을 열고 딸 박이랑 기타리스트와 함께 클래식기타를 가르치고 있다.

딸이 클래식 기타리스트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어머니와 작고한 아버지 역시 클래식기타리스트로 활동한 전력이 자연 딸의 피 속에도 스며든 때문인지도 모른다.

“다섯 살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 바이올린, 첼로 등 악기란 악기는 모두 배웠어요. 그러다 한창 예민할 초등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한순간 삶의 희망도, 길도 잃고 방황했어요. 그렇게 실의에 빠져 무의미한 일상에 지쳐가던 중 고등학교 3학년에 방구석에 먼지를 쓰고 누운 아버지의 클래식기타를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날따라 아버지의 유품으로 남은 기타를 보고 철없던 시절의 방황도 끝, 하루 종일 기타만 쳤어요.”

고3에 클래식기타를 잡은 그녀는 하루 온종일 기타만 쳤고, 출중한 연주 실력으로 목원대학교 음악대학 관혁악부에 입학, 클래식기타를 전공하며 프로페셔널 연주가의 길에 들어섰다.

대학 시절 그녀의 별명은 인간튜너(Tunor). 타고난 절대음감은 동료 학생들은 물론 교수님들마저 악기 조율은 그녀에게 떠맡길 정도로 탁월한 음감은 오늘의 그녀를 이룬 힘의 원천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클래식기타의 거장들이 있는 세계 곳곳을 찾아 기타 연주 여행에 나선 그녀는 러시아 국제기타 콩쿠르 입상, 프랑스 국제기타 페스티벌 ‘sol tasto’ 초청연주 등 차근차근 실력을 쌓았다.

고향 전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앙헬기타음악원을 운영하는 지금도 대전기타오케스트라 프로단원으로 활동하며 목원대 대학원에서 클래식기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전 세계 클래식기타리스트들 사이에 확고한 뿌리를 내린 그녀의 명성에 싱가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도 수강 문의가 쇄도한다.

대학원 공부로 학원생 지도는 매주 월, 화요일 두 차례뿐이지만 해외에서 특별 수강을 신청한 기타리스트들을 위해 저녁에는 동영상 강연도 진행한다.

그녀가 직접 이름을 지은 ‘앙헬기타음악원’의 앙헬은 스페인어로 천사(Angel)을 뜻한다. 또한 앙헬은 그녀 삶의 롤 모델이 된 클래식기타리스트 명인 앙헬 로메로의 이름이다.

로메로 가문은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클래식기타의 로열 패밀리.

1대인 셀레도니오 로메로를 시작으로 아들인 셀린, 페페, 앙헬 삼형제에 이어 셀린과 앙헬의 아들인 셀리노, 리토까지 3대째 기타 가문의 명성을 지키고 있다.

1996년 타계한 셀레도니오는 세 아들과 함께 ‘로메로스 4중주단’을 결성해 활동하기도 했다. 스페인의 유명 작곡가 로드리고는 이들 4부자를 위해 ‘네 대의 기타를 위한 안달루시아 협주곡’을 작곡해 헌정했다.

앙헬은 기타리스트이자 지휘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유진 오먼디를 사사한 그는 피츠버그 심포니와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등 정상급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와 기타 협연을 펼쳐왔다.

앙헬과 함께 박이랑 클래식기타리스의 마음을 사로잡은 선배 기타리스트는 파라과이의 아구스틴 바리오스 망고레와 이탈리아의 카를로 도메니코니.

바리오스 망고레가 작곡한 ‘숲 속의 꿈(un sueno foresta)’, 카를로 도메니코니 ‘Koyunbaba op.19’ ‘Aniello Desiderio’는 박이랑 기타리스트의 대표적 연주 레퍼토리.

박이랑은 “도메니코니의 작품은 멜로디에 동서양의 정서가 절묘하게 교차하면서 깊은 울림을 준다”며 “동서양의 멜로디를 결합하고 개방현이나 기타의 울림을 최대한 활용한 작품이 많아 클래식기타리스트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물여덟 젊은 나이에 이미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박이랑 클래식기타리스와 그녀의 어머니 앙헬기타음악원장의 소망은 소박하다.

그녀의 연주를 초청하는 세계 각국에 기타 연주 여행을 다니면서도 고향 전주에 둥지를 튼 앙헬기타음악원에서 기타 애호가와 어린이들에게 클래식기타의 진수를 가르쳐 아름다운 선율의 하모니를 이뤄내는 것.

박이랑씨는 “기타를 배운지도 어느덧 1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타를 칠 때가 가장 행복하다”며 “사랑하는 어머니, 앙헬기타음악원의 어린이들과 함께 더불어 오래도록 아름다운 선율의 기타 하모니를 이뤄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